

현장시선



류용수 제주지방조달청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혁신조달'

제주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 예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속에서 유채꽃을 구경하며 추억거리를 만들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로 행사가 취소돼 그릴 수 없게 됐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인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년 전 네덜란드에서 'koe knuffelen (코 쿠네펠렌·암소 포옹)'라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시작돼 이후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미국의 일부 농장들에서 선보였던 것이 현재는 코로나블루 극복방법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코로나19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불러왔고,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언택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즉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꿔 놓으며 그와 관련된 디지털 혁신 기술들의 적극적인 사용은 이끈 것이다. 이처럼 시대상황과 사람들의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혁신기업, 혁신기술의 전면적인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조달방안'을 마련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을 추진했다. 아직 시장에서 상용화되지 못한 시제품을 조달청이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우선 매칭을 시킨다. 이후 공공기관이 실제 테스트해 나타난 결과들을 피드백해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들의 초기판로를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국내 혁신기업들이 성장 계도에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조달' 플랫폼 또한 운영 중에 있다. 그 결과 2019년 이후 현재까지 462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됐고, 2020년 공공시장 혁신제품 구매액은 4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발굴을 함께 추진하고, 선도적 구매자로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확보하는 등 기술개발 제품의 시장진출을 돕고, 국민에게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소 꺼안기'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제주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조달'이라는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통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들이 혁신성장의 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혁신기업들의 소 꺼안기'가 될 준비가 돼 있다. 국내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제주조달청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또한 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체를 보유한 업체를 찾아 혁신제품 등록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기술개발에 힘쓰는 중소기업들이 웃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해 본다.

사설

뜻깊게 맞은 4·3, 급한 문제부터 풀어야

제주4·3이 어김없이 다시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고 몹서러 쳐진다.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기 때문이다. '4·3의 광풍'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잊을래야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아물지 않은 상흔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올해 73주년을 맞는 4·3은 그래서 뜻깊게 다가온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는 대 큰 의미가 있다. 4·3 때 불법 군사·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큰 전기를 맞았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많은 도민이 희생됐는데 어떻게 배·보상 아닌

'위자료'로 변질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준다. 분명 4·3특별법 개정으로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당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보상 영역에 4·3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4·3행방불민 문제다. 이만큼 남아있을 뿐 언제 어디서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행방불민이 4000명에 이른다. 현재 법 군사·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큰 전기를 맞았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많은 도민이 희생됐는데 어떻게 배·보상 아닌

열린마당

봄철 산불, 작은 관심이 큰 변화로



한정민 서귀포소방서 대인119센터

봄철 산불, 작은 관심이 큰 변화로. 1594건(34%)로 가장 많았고 눈·발동령 소각 717건(15%), 쓰레기 소각 649건(14%) 순이었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화재 발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개개인의 작은 관심이 산불화재의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푸른 산림을 지킬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등산객들과 성묘객은 산행을 할 때 성냥과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흡연 후 담배꽂이 투척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농작물피해와 자연파괴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 십년의 시간, 경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작은 실천이 큰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가 1594건(34%)로 가장 많았고 눈·발동령 소각 717건(15%), 쓰레기 소각 649건(14%) 순이었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화재 발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개개인의 작은 관심이 산불화재의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푸른 산림을 지킬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등산객들과 성묘객은 산행을 할 때 성냥과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흡연 후 담배꽂이 투척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농작물피해와 자연파괴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 십년의 시간, 경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작은 실천이 큰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뉴스-in

원 지사 "관광객 귀환, 방역 방심하지 말라"

접종 관리·투명 행정 당부

원 지사는 "관광객 귀환, 방역 방심하지 말라"고 주문. 이삼민기자. 원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관광객 귀환으로 지역 경제·상권 회복이 기대되지만 방역 면에서 감염 위험이 커지기에 방심하지 말라"고 주문. 이삼민기자. 원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관광객 귀환으로 지역 경제·상권 회복이 기대되지만 방역 면에서 감염 위험이 커지기에 방심하지 말라"고 주문. 이삼민기자. 원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관광객 귀환으로 지역 경제·상권 회복이 기대되지만 방역 면에서 감염 위험이 커지기에 방심하지 말라"고 주문. 이삼민기자.

시는 오는 6월말까지 점검과 평가를 통해 환경적·인적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조치계획 및 감소대책을 수립·이행,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한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 산하 사업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 ○...제주도교육청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올해 도내 6개 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 최근 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곳은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와 마을강사 양성 및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칠 예정.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마을이 함께 협력·상생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섬진흥원 공모, 제주는 신청도 않다니...

제주가 대한민국 섬 관련 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 섬진흥원 설립 지역공모에 신청조차 안 해 의문을 남기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와 뚝뚝한 유치 자체에 무관심한 제주도 행보를 이해 못할 상황이다. 대한민국 섬의 '만형'격이자 '모섬'이라 할 제주가 이 사업을 마다한 이유가 뭘지 규명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 공모를 지난달까지 한 결과 경남 전남 전북 등 5개 광역시도에서 8개 자치단체 접수로 마감됐다. 우리나라 최대 섬이자 유인도 8, 무인도 56개의 부속섬으로 이뤄진 제주는 신청하지 않았다. 행안부가 지난 2월부터 섬과 섬의 접근성,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섬 보유 지자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공모에 빠진 제주로선 유치 노력도 못 해보고 타 지역에 섬진흥원 설립을 '구경'만 하게 된 셈이

다. 행안부 관계자도 제주가 빠진 사실을 전하며, 사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할 정도다. 행안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8월 출범할 한국섬진흥원은 3월 8일에 50여 명으로 꾸려진다. 사업 경쟁성 운영결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진행단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74억원, 취업 유발효과 279명으로 추정되는 '알짜사업'이다. 제주가 한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혁신도시내 중앙공공기관·기업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판에 비해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는 제주 섬의 가치를 한껏 키우고, 다가올 섬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섬진흥원 공모에 빠진 사유를 해명해야 한다. 도는 제주가 국내 3300여 개 모든 섬만 공모에 빠진 제주로선 유치 노력도 못 해보고 타 지역에 섬진흥원 설립을 '구경'만 하게 된 셈이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장길(향년 8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릴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4월 2일. 부인 김정인, 아들 김완병, 며느리 고경희, 영선, 고미영, 딸 김국향, 사위 이상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온·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이벤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태양광 설치.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건물(상업용), 발전사업 & 유지보수, 폐 태양광 철거 & 리파워링. Haenuri Energy Co., Ltd. (주)해누리에너지. http://해누리에너지.com. T. 712-8081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